

예술가게
까로미오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도 미술시장 이 힘든 시기에 지역 작가들이 ‘아트 상품’ 개발로 미술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작가 단체나 협동조합, 갤러리 등에서 아트 상품과 소품을 전시·판매 하고 작가들에게 수익금을 되돌려주면서 젊은 작가들에게는 창작비용, 중견 작가들은 보다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아트 상품’과 ‘소품’은 컬렉터들에게는 미술관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즐거움을 주고, 작가들에게는 잠재적인 미술 컬렉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눈길 이 자꾸만... 아기자기 ‘아트 상품’

◇아트 상품 개발 전문 공간 SpaceAP = SpaceAP(Art&Product)는 지난 5월 만들어진 공간이다. 조각가인 오민곤 대표가 대인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 30여명과 협력, 작가들의 이미지를 활용해 머그컵 등 다양한 아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젊은 전업 작가들의 아트 상품을 다각적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창작비로 지원함으로써 자생적 예술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오 대표의 목표다.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대신,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작가들에게 돌려준다. 또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작가들에게 전시회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참여 작가는 주로 젊은 작가들과 미대생 등을 위주로 선발한다.

지난 6월 ‘스페이스 영’에서 황해원, 이인



SpaceAP 오민곤 대표

협동조합·갤러리 등에서 전시·판매

대인시장에 상품 개발공간 문열어

수익금은 작가들 창작비로 지원

성, 이선희씨 등 젊은 작가들을 초청 ‘원 나잇 스탠드’를 주제로 전시를 열었고, 지난 9월 12~25일 ‘BIGBRO COFFEE’에서 ‘쫄미 왓츄 갓’을 주제로 미대에 재학중인 예비 큐레이터들이 기획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오 대표는 “자생적 문화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지역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SpaceAP는 지난 5일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째주 토요일 오후 대인 예술시장 공용주차장 후문에서 아트 상품들을 판매하는 ‘버룩시장 HOOK’을 연다.

◇협동조합이 만든 예술가게 까로미오(carro mio) = 광주 지역 미술인들과 컬렉터들이 모여 지난 4월 설립한 광주미술협동조합(이사장 이양숙 갤러리 리체 관장)은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9월6일~11월3일) 아트 마켓 형식의 예술가게 ‘까로미오’를 운영한다.

‘나의 작고 귀여운’이라는 가게 이름처럼 아트 상품을 비롯해 소품 크기의 회화, 판화, 조각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1만~50만원 선에서 판매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일반에 선물하겠다는 목표다. 한희원, 송필용, 강운, 류재웅, 박구환, 이양숙, 정경래, 조규철, 오창록, 장용훈 등 모두 50여명에 이르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이양숙 관장은 “미술 작가들이 대중과 소통을 통해 보다 깊이 있고 폭 넓은 작품 활동을 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작품 구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었다”며 “한 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관람객과 작가들의 반응이 좋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작품과 상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갤러리 아크=갤러리 아크에서는 전시 작품을 아트 상품과 소품으로 만날 수 있다. 미술작품을 ‘테이크 아웃’한다는 컨셉으로 만든 아트샵에서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작가들의 아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머그컵, 넥타이 등 아트 상품을 비롯해 박구환, 김해성, 김종국, 신재남, 이설재 작가 등의 1~2호 크기의 소품과 판화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갤러리 아크가 아트샵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잠재적 컬렉터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이묘숙 관장은 “작고 저렴한 진품인 소품과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진 아트 상품을 구매하다가 보면 자연스레 작품과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며 “작가들이 일반인들에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대구·대전합창단 교류음악회

내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광주와 대구, 대전 3개 광역시는 지난 2010년부터 한자리에 모여 화합의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다. 3개 광역시가 체결한 ‘내륙 거점 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3개 도시 합창단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교류음악회를 갖는다.

레퍼토리는 모차르트, 포레의 작품과 함께 세계 3대 레퀴엠으로 꼽히는 베르디의 ‘레퀴엠’이다.

각종 광고, 영화 등에 등장해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제 2곡 ‘진노의 날’을 비롯해 ‘주여,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피날레 곡 ‘나를 구원하소서’ 등 모두 7곡으로 구성돼 있다.

솔리스트로는 소프라노 임세경, 알토 양승미, 테너 정호운, 베이스 김남수씨가 참여한다. 합창단 이외에도 광주시향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던 금노상씨가 이끄는 대전시립교향악단이 협연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613-82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휘 금노상

여행가방 속 세상

정숙영 개인전, 15일까지 신세계갤러리

광주여대 정숙영 교수가 9~15일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설치 미술과 버디 페인팅-삶의 은유와 치유의 여행 가방들’을 주제로 3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버디 페인팅과 오브제 설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여행’이 의미하는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평면 작업 뒤에 그래픽 수정을 거쳐, 다시 회화를 입히는 기법과 평면 그림에서 절어나오는 다양한 FRP 재질의 설치 작업들이 조화롭게 전시돼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낸다.

작품마다 등장하는 여행가방은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지닌 오브제다. 삶과 죽음을 여행으로 해석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적 여행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담겼다. 때로는 철판을 형상에 따라 오려내고 채색해 자동차, 스마트폰, 백화점 세일 등 사회문제에 대한 고발 메시지를 던지기도 한다.

작가는 “이동과 보관을 반복하는 여행 가방은 정주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은유하며, 여행가방 속에서 만화경 같은 인간세상을 그려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 일본, 서울 등에서 21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저서로는 ‘드로잉, 또 다른 선의 언어’ 등이 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등가야금연주단 ‘아리랑 힐링’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섬세한 가야금 선율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볼 수 있는 국악 연주회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의 ‘아리랑 힐링’ 무대를 선보인다.

조선시대 궁중 연례악 악장의 하나인 정악 ‘천년만세’를 시작으로 가야금병창 ‘녹음방초가, 흥보가 중 구만리’, 황호준 작곡 ‘시간의 수레바퀴’를 들려준다. 이어 3대의 25현 가야금을 위한 ‘힐링 음과 양의 조화’, 아리랑을 가야금 선율로 재구성한 ‘아리랑 힐링’, 여성스럽고 섬세한 특성을 가진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감상할 수 있다.

성심은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서 담 전남도립대 교수, 황승욱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이사장, 김경희 광주교대 강사 등이 출연한다.

한편 빛고을 무등가야금연주단은 1992년 창단돼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다수의 초청 연주를 가지면서 가야금 연주를 통한 전통음악 보급과 무대예술기획의 변화를 선보이고 있는 순수 예술단체다. 관람료 성인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62-670-749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정상 “급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
-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주인직매 010-4667-93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주1회 3개월 스터디 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